

葛藤理論에 있어서의 産業社會의 階級形成에 관한 理論 檢討

— Ralf Dahrendorf를 中心으로 —

申 幸 澈

〈目 次〉

- | | |
|-------------------|-----------------------------|
| I 序論：問題의 性格 | V 權威關係와 階級秩序 |
| II K. Marx에 대한 見解 | VI 結論：發展的 研究를
위한 問題點의 提起 |
| III 階級概念과 階級理論 | |
| IV 産業社會의 階級構造 | |

I 序論：問題의 性格

갈등이론은 대체로 두개의 커다란 줄기에서 이해 된다. 하나는 K. Marx를 그 古典的 理論家로 하여 Ralf Dahrendorf로 이어지는 辨證法的 葛藤理論 혹은 葛藤構造理論이고 다른 하나는 G. Simmel을 그 先驅者로 하는 Lewis A. Coser등에서 볼 수 있는 葛藤機能論이다.

그런데 後者 즉 Coser의 갈등이론은 갈등을 그 分析의 주요 개념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갈등 이론이기는 하나 그가 구조기능론적인 테두리 속에서 그 나름의 갈등이론을 짜는데 이르고 있고 갈등의 社會統合的 性格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理論이 기능주의적 觀點을 함축하고 있으며 기능이론에 대한 보완조치로서의 性格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

이에 비하여 Dahrendorf는 기능이론이 社會의 한 측면 즉 合意의 側面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의 측면 즉 葛藤의 측면을 소홀히 했음을 비판하고 기능이론에 대응하는 하나의 社會에 대한 視角으로서 갈등이론을 제기하였다. 즉, 그는 그의 글 'Out of Utopia'의 結論部分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구조 기능주의자들의 잘못을 들어 갈등모델이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싶지 않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社會학적 問題의 설명을 위해서 양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상 철

1) 박영신, "갈등사회에의 이론적 인식," 박영신(편저), 갈등의 사회학, 까치, 1980, pp.21-22. 같은 저자는 다른책 변동의 사회학 (학문과 사상사, 1980), p.21에서도 같은 요지의 서술을 하고 있다.

학적 의미에 있어서 사회는 같은 현실의 두 얼굴을 갖는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안정, 조화, 합의의 얼굴과 변화, 갈등, 억압의 얼굴이 그것이다」²⁾

따라서 갈등이론의 眞面目은, 적어도 기능이론에 비판적으로 맞서는 성격으로서의 갈등이론의 特徵的 性格은 辨證法的 葛藤理論에서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변증법적 갈등이론은 利害關係가 대립되는 두 집단 사이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葛藤現象의 變化的 動態性을 다룬다. 이 때 對立·葛藤하는 集團들은 자기 하나의 階級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利害關係가 相衝하는 階級들이 存在하는 社會構造가 곧 葛藤의 前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階級은 갈등이론의 核心的 概念인 것으로 보아진다.

이 글에서 Dahrendorf를 중심으로 階級の 問題를 論議하게 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³⁾

Dahrendorf의 갈등이론은 階級形成理論과 階級葛藤理論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 本稿는 葛藤의 問題를 論外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階級形成의 問題를 그 主要 關心事로 삼는다. 그리하여 먼저 마르크스의 階級理論에 대한 그 견해를 살펴보고 나서 階級 概念을 중심으로 그의 계급이론의 性格을 알아보고,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계급구조와 權威關係에 관하여 考察하려 한다.

II K. Marx에 대한 見解

1950年代 까지만 하더라도 마르크스는 社會學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哲學者, 經濟學者로 취급되었던 것이 近來 1960年代에 이르러 社會學分野 특히 葛藤理論家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思想이 크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⁵⁾

社會葛藤現象을 理解하려 할 때 마르크스의 理論을 거론치 않을 수 없을 만큼 現代社會學은 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Dahrendorf에 따르면 階級理論을 하나의 특수한 내용으로 하는

2) R.Dahrendorf, "Out fo Utopia," R.Dahrenorf, Essays in the Theory of Society, Stanford Univ. Pr., 1968, p.128.

3) 물론 계급에 대한 모든 논의가 갈등의 시각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갈등은 계급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산의 재분배, 국가 정치에의 참여 및 그 변경에 관련하여 다투는 소수 지배자들 사이의 갈등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4) Dahrendorf는 "일반적인 계급이론은 분석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두요소로 구성된다. 즉 계급 형성이론과 계급행위 혹은 계급갈등 이론이 그것이다"라고하였다.(그의 책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austrial Society, Stanford Univ. Pr., 1959, p.153)

5)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James T.Duke, Conflict and Power in Social Life, Brigham Young Univ. Pr., 1976, p.144. 특히 <주> 2를 참조.

葛藤理論은 産業 및 政治葛藤의 分析에 적용될 때 傳統的 특히 마르크스의 階級理論의 입장에 매우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다.⁶⁾ Anthony Giddens 같은 사람은 마르크스를 E. Durkheim, M. Weber 등과 더불어 資本主義 社會理論의 代表的人物로 손 꼽고 있는 터이다.⁷⁾ 박영신 교수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회변동을 갈등론적 모형으로 분석하는 현대사회학의 이론을 이해하려 할 때 마르크스의 이론을 거론치 않을 수 없을 만큼 그가 끼친 영향은 큰 것 같으며, 그의 이론을 흔히 갈등론적 모형의 창시적 이론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다.」⁸⁾

葛藤社會學의 측면에서 보면 마르크스이론의 要諦는 그의 階級理論이다. 이는 그의 問題意識에서 보나 그 영향력에서 보나 現代社會學理論이 딛고 넘어가야 할 山頂임을 부인할 수 없다. T. B. Bottomore는 社會階級이 경제적인 집단의 性格을 포함하고 있는 한, 階級理論의 論議에서 마르크스의 견해를 고찰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고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펴려하였다.

「마르크스가 계급을 인식함에 있어서 경제적 기반을 대단히 강조할 뿐 아니라 계급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뚜렷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과 마르크스의 계급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체가 사회계급의 본질에 연관된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다만 마르크스의 階級理論이 갖는 單純性, 一面性을 극복하고 변모된 사회구조의 樣相에 따른 타당한 계급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現代社會學에 있어서 階級理論이 해결해야 할 課題라 할 것이다.

R. Dahrendorf는 마르크스의 理論的 脈을 이어 그를 批判的으로 수용하고 있다.¹⁰⁾ 그는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은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이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가장 먼저 계급이론을 정립했고 또 가장 독특한 이론을 제시했다. 오늘날 마르크스의 이론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마르크스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¹¹⁾

6) R. Dahrendorf, "Toward a Theory of Social Conflict," (1958), in W. L. Wallace (ed.), Sociological theory, Aldine Pub. Co., p. 221.

7) Anthony Giddens,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Cambridge, 1971 참조.

8) 박영신, 앞의 책 (변동의 사회학), p. 18.

9) T. B. Bottomore, Classes in Modern Society, Allen & Unwin, 1965, pp. 16-17.

10) Irving M. Zeitlin은 Dahrendorf가 그의 先學들 처럼 Marx와 타협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자신이 하는일이 마르크스에 대한 “경험적 논박과 이론적 대체”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쓰고 있다. (Zeitlin, Rethinking Sociology, Prentice-Hall, 1973, p. 109)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론에 있어서는 階級の 概念과 理論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어떤 저술에서도 그 계급이론이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資本論」Ⅲ卷 마지막 章인 제 52장에서 F. Engels의 “원고는 여기서 중단되었다”는 添言과 함께 끝맺지 못한 “계급이론”이 실어져 있고 「공산당선언」등의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¹²⁾ 마르크스는 사회계급을 명백하게 두개의 계급 즉,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로만 구분하지는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어서 그 계급의 구분은 모호하다.¹³⁾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階級概念의 重要性和 階級分類의 애매성에 대해서는 S. Ossowski에 의해 잘 서술되고 있다. Ossowski는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階級概念은 “階級立場”과 “階級觀點”이라는 용어가 근래까지도 “마르크스주의 입장”과 “마르크스주의 觀點”과 같은 뜻으로 쓰일 만큼 마르크스이론 전체의 中心的 概念으로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社會階級概念은 階級利益의 上部構造로서의 文化에 대한 마르크스의 전체적인 理解와 分離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¹⁴⁾ 그러나 Ossowski에 따르면 그 의미는 뚜렷이 定義되지 않고 可變的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하여 階級은 “공통의 經濟的 利害關係를 가진 사회집단의 범주 또는 어떤 측면에서 同一한 經濟的 條件을 함께 가지고 있는 成員들의 集團이라기 보다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分化된 집단들을 가리킨다.”¹⁵⁾ 계속해서 Ossowski는 資本論의 第三卷 “階級論”에서도 “마르크스가 ‘무엇이 계급을 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극적으로 끝나고 있다”고 하고 오직 사회계급 分類만이 사회계급에 부여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다.¹⁶⁾

그러면 사회계급의 分類의 問題가 마르크스에 있어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Ossowski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면에서 Marx의 社會階級 分類의 多樣性을 지적하고 있다.¹⁷⁾

(1) 中間階級들의 存在를 인정한다는 점, 경제적 등급화에 있어서 中間의 位置를 차지하는 집단들은 아주 다양한 身分과 經濟的 地位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圖式 속에 한정하기 어렵다. 때때 부르조아지,¹⁸⁾ 교수, 소자본가, 의회의원, 저술가들로 구성되는 自由主

11) Ralf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Univ. Pr., 1959, p. 117.

12) Raymond Aron, La Lutte de Classes : 李東烈(譯)産業社會와 社會階層, 汎潮社, 1980, ch. II 참조.

13) 위의 책 같은 章 참조.

14) Stanislaw Ossowski, Class Structure in the Social Consciousness, trans. Shelia Petterson, Free Press, 1963, p. 71. (이 책은 본래 1956년 폴랜드어로 출판된 것이다.)

15) 위의 책 같은 페이지.

16) 위의 책, p. 72.

17) 이 문제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Ossowski의 위의 책, pp. 75-82의 내용을 갖추된 것이다.

18)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개의 층으로 나누어 진다. 자신의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고용노동도 사용하는 층과, 고용노동은 사용하지 않는 층.

義의 中間階級 등이 그것이다.

(2) 三分法的 機能圖式이 발견된다는 점, 즉 마르크스는 資本論 第三卷 마지막 未完成의 章(階級論)에서 "임금노동자들과 자본가들과 지주들은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기반을 둔 근대사회의 세계의 거대한 계급들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다.

(3) 더 나아가서 多分法的 分類도 유추할 수 있다는 점, 즉 마르크스는 금융귀족들을 産業 資本家들과 구별하기도 하고 農民의 존재도 언급하고 産業프로레타리아와 구분하여 톰펜프로레타리아라는 계층을 언급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르조아와 大産業家階級을 달리 區分하기도 한다.

마르크스가 이와 같이 다양하게 社會階級들을 分類한 것은 복잡한 역사과정과 온갖 문화현상에 대한 해석을 위해 필요하였던 것이고 實際의 社會構造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階級の 分類은 二分法的 圖式이라 할 것이다. 二分法的 圖式은 資本主義社會를 그 支配의이고 獨特한 形態인 生産關係의 측면에서 특징지우려는 것이고 마르크스주의가 수행하고자 했던 革命의 임무를 위해서 가장 편리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階級の 兩極化는 資本主義의 社會構造의 進歩의 過程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 社會가 發展함에 따라 社會階級은 결국 부르조아와 프로레타리아 두 階級으로 兩極化될 것으로 믿었다. 그는 "資本論"의 未完成의 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갖고 있는 변함없는 경향과 발전법칙을 볼 수 있는 바 즉 생산수단이 점점 더 노동으로 부터 분리되고 이와같이 분리된 생산수단은 점점 더 대규모로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노동은 임금노동으로, 생산수단은 자본가 소유로 변하게 된다」¹⁹⁾

이렇게 二元化되는 두 계급 사이에는 敵對感이 심화됨으로써 이는 필연적으로 革命을 초래하여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고 계급없는 사회가 오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네가지 내용으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그 계급구분법은 일정치 않고 경우에 따라 편의적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 (사회현상에 대한 현실적 이해.)

② 생산수단과의 관계에 의해 즉 그 所有와 非所有에 따라 계급을 구분한다는 것(계급의 經濟決定論 및 兩極化).

③ 사회계급은 階級意識을 전제로 해서만 존재하는데 그 계급의식은 階級鬭爭 認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鬭爭을 전제로 하는 階級).

19) Karl Marx, Das Kapital :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Verlag Berlin, 1959, Ⅲ권, p.941.

④ 社會階級の 存在는 生産發展의 어떤 歴史的 局面에만 關連된다는 것(階級없는 社會의 到來).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이상의 네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Dahrendorf는 마르크스가 강조한 階級사이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계급을 所有와 非所有라는 基準에 의하여 정의하는 것은 20세기의 産業社會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논박한다. 그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계급관계가 權威의 不平等한 分配에서 유래한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대한 Dahrendorf의 견해를 검토해 보자. Dahrendorf는 갈등이론의 탁월한 저서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²⁰⁾에서, 여러 著書에서 散見되는 계급에 관한 內容들을 엮어 마르크스의 階級理論을 再構成한 후 이를 分析的으로 검토하여 부분적으로 受容하면서 批判하고 있다.²¹⁾ 우선 Dahrendorf는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이 두 가지 상호 분리 가능한 부분 즉, ① 경험적 증명을 허용하는 社會學的 要素와 ② 경험적 검증을 전혀 벗어난 철학적 요소로 나누어 보고 있다. 哲學的 要素로는 ① 계급과 사유재산의 독단적 연결, ② 모든 사회의 역사에 계급투쟁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점, ③ 자본주의 사회를 역사상 최후의 계급사회로 보는 점, ④ 사회구조의 변동이 반드시 혁명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²²⁾ 이 哲學的 要素의 思辨性이 마르크스 계급이론의 社會學的 性格을 半減시켰다고 본다.

社會學的 要素로서는 다음과 같은 8個 項目을 든다.²³⁾

- ① 전체사회의 수준에서 變動을 설명하고자 했다.
- ② 계급투쟁의 조건의 일반적 유형으로 兩 階級모델을 제시했다.
- ③ 계급형성의 조건은 사유권의 인정이라는 점.
- ④ 경제적 권력·권위와 정치적 권력·권위를 동일시 하는 점.
- ⑤ 계급형태의 집단화가 발생하는 과정의 단계를 사회구조의 조건으로 부터 묘사하는 점.

20) 이 책은 원래 1957년 『Soziale Klassen und Klassen Konflikt in der Industriellen Gesellschaft』라는 명칭으로 독일어로 출판되었던 것이 1959년 저자 자신에 의해서 다시 英文版으로 改正되면서 번역되었다.

21) 이 책의 일장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재구성 하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으며 4장에서는 이에 대한 社會學的 批判을 하고있다. 이하 本稿 II의 나머지 부분은 주로 이 내용을 要約叙述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崔載賢, “Ralf Dahrendorf 연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회, 韓國社會學 研究 1輯, 1977)와 J. T. Duk의 앞의 책(pp.168~172)이 참고될 것이다.

22) Ralf Dahrendorf, 앞의책(1959), pp.27-32.

23) 위의 책, pp.18-27.

⑥ 사회계급의 자격은 조직집단으로서 정치투쟁에 참여하고 그 구성원들이 계급의식을 가진으로써 갖추어진다는 점.

⑦ 계급형성에 관한 이론은 사회변동의 원동력으로서의 계급갈등이론의 일부가 된다는 점.

⑧ 갈등에 따른 변동을 사회적 현실태로 보는 사회관.

Dahrendorf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의 요소들 중 어떤 것은 거부하고 어떤 것은 지지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계급개념과 계급이론을 전개해 간다.

그가 지지하는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① 동태적 입장에서 사회변동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제 요인과 세력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사회구조와 사회변동의 관련).²⁴⁾

② 집단갈등이 구조변동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점(사회변동과 갈등의 관련).²⁵⁾

한편 마르크스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변동과 계급갈등을 관련시키는 입장에 있어서: 계급갈등이 가장 중요한 갈등이긴 하나 모든 갈등을 계급갈등에 제한시키는 것은 잘못이다.²⁶⁾

② 계급갈등과 혁명을 관련시키는 점에 있어서: 계급갈등이 항상 혁명적인 것은 아니다.²⁷⁾

③ 계급과 계급갈등을 관련시키는 점에 있어서: 계급간의 갈등이 항상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²⁸⁾

④ 소유권과 계급의 관련에 있어서: 소유권이 아니라 권위 혹은 권력이 계급형성의 기준이다. 소유권은 권위의 한 형태일 뿐이다.²⁹⁾

⑤ 산업상의 권력과 사회적 권력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와 정치 양자사이에 상관관계는 있으나 일반화 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재산의 소유보다 정치권력의 우위를 주장한다.³⁰⁾

Dahrendorf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한편 그를 보충하여³¹⁾ 그의 계급이론을 정립하였는데 이는 그의 갈등이론의 기초가 된다.

24) 위의 책, pp.119-124.

25) 위의 책, pp.124-126.

26) 위의 책, pp.126-130.

27) 위의 책, pp.130-133.

28) 위의 책, pp.133-136.

29) 위의 책, pp.136-141.

30) 위의 책, pp.141-144.

31) 보충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144-150. 참조

Ⅱ 階級概念과 階級理論

Dahrendorf는 階級構造의 分析에 있어서 階級役割 또는 階級位置에 관련시켜 계급구조를 분석하려는 마르크스의 객관적 계급이론을 보충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관적 계급이론의 次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階級役割을 맡고 있는 개인의 社會心理的 측면도 階級構造를 分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급 형성의 要因을 階級을 형성하는 개인의 측면과 전체 계급성원이 처해 있는 個人外的 環境의 側面에서 모두 찾아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Dahrendorf에 의하면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論爭은 階級概念에 관한 問題로서 계급을 이론적 차원에서 보느냐 실제적 차원에서 보느냐 하는 것과 결부된다.³²⁾ 계급을 이론적 현상으로 볼때 그것은 인간을 일정한 特性에 따라 分類抽象化한, 같은 形態의 사람들이고, 실제적 현상으로 볼때 그것은 특수한 目的을 갖고 있는 社會的 實體 즉, 특정의 集合體를 일컫는 概念이 된다. 실제적 현상으로서의 계급은 社會的 葛藤을 일으키는 原動力으로서의 階級 혹은 그와 같은 갈등을 실행하고 있는 組織化된 集團化로서의 階級이다. 그리고 이론적 현상으로서의 계급은 權威關係로 組織化된 社會組織內의 社會的 地位로서의 계급이다. 어느 概念이 보다 훌륭한 것인가 하는 질문은 階級の 種類에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階級理論에 관한 한 이 質問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Dahrendorf의 입장이다. 무릇 科學이란 이론적 현상의 측면에서 실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그 本質이라 한다면, 階級理論에 있어서도 실제적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여 이론을 구성하고 이 이론에 비추어 다시 실제적 계급 현상을 비쳐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계급이론이 포함하는 많은 概念들 중의 하나로서 階級概念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명령적으로 조정된 조직체의 권위구조에 관련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적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개인들의 조직화된 혹은 비조직화된 집합체라 할 것이다. 사회계급은 현재적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라는 정의 때문에 항상 갈등집단인 것이다.」³³⁾

Dahrendorf에 있어서의 계급개념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이론을 구체화시켜주는 용어로서 그것은 계급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階級理論은 權威關係로 구성되어 있는 社會組織의 構造的 變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관

32) 위의 책, p.150참조, 이하 계급의 개념 및 그 이론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같은 책 pp.150-154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33) 위의 책, p.238.

심을 두고 있으며 特定社會의 階級 現象을 조월하여 구성되는 理論이다.

계급형성이론은 계급갈등이론과 더불어 계급이론의 한 분야인데, 이는 階級構造(즉, 계급은 왜 어떤 방법으로 단결하고 있는가?)와 階級形成(즉, 계급은 어떻게 발생 되는가?)을 포괄하는 領域이다. 말하자면 계급발생에 관련하여 分析하는 領域이다. 계급갈등이론은 계급형성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계급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階級の 範圍와 그 類型을 다루는 계급구조의 영역이고 후자는 계급갈등과 그 규제의 문제, 계급갈등으로 인한 사회변동을 다루는 계급갈등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IV 産業社會의 階級構造

Dahrendorf는 그의 階級理論을 産業社會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마르크스 이후 變動을 거친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階級現象을 分析하고자 한다.

Dahrendorf에 따르면 산업사회는 "일반적으로 공장과 기업에 있어서의 기계화된 상품생산"을 그 特徵的 樣相으로 하는데,³⁴⁾ 이는 資本主義社會를 포괄하는 全体的인 概念이다. 이 概念은 先進工業社會를 모델로 하기 때문에 工業化된 社會主義社會도 포함한다.

마르크스는 産業革命에 이어지는 어떤 歷史的 時点에서 資本主義社會 現實에 입각하여, 그 社會階級構造의 本質을 所有權을 中心으로한 兩極化의 傾向이라고 認識했다. 이점에 대하여 T. B. Bottomore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 보다 등질적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은 기계의 사용이 보다 광범위해짐으로써 기술과 소득의 차이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舊中間階級の 많은 성원들이 임금노동자의 생활조건으로 내려앉게 될 것임으로 노동자 계급은 수적으로 강력해 질 것이며, 노동자 생활조건이 비슷해지고 노동자 계급의 조직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시설이 발달하고 사회주의 교리가 전파됨으로써 노동자 계급은 보다 단결되고 계급의식도 발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노동계급의 물질적 조건과 부르조아지의 그것과는 상당한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노동계급은 혁명적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다.」³⁵⁾

그런데 Bottomore는 마르크스의 기대와는 달리 마르크스 이후 社會階級体系의 兩極化現象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마르크스에 대해 批判的인 見解들이 들고 있는 그 理由에 대해 대략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 근래 生産性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勞動者階級の 절대적 生活水準이 높아짐으로써 프로

34) 위의 책, p.40.

35) T. B. Bottomore, 앞의 책(1965), p.28.

메타리아의 부르조아化現象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現代의 勞動者階級은 技術의 水準에서 볼때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었으며 中間階級の 팽창은 全人口 중에서 産業勞動者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켰다. 社會移動性的의 增加는 勞動階級の 結束력을 약화시켰고 勞動者 階級은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中間階級の 生活類型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³⁶⁾

(2) 경제발전에 따라 會社員, 감독, 경영자, 기술자, 과학자 및 일종의 봉사적인 機能을 제공하는데 고용된 사람들로 형성된 새로운 中間階級이 成長함으로써 現代産業社會에 있어서의 社會階層은 보다 더욱 복잡해졌음을 나타낸다.³⁷⁾

(3) 財産所有權의 광범위한 分散과 大規模 財産所有의 붕괴, 그리고 社會移動의 增大에 따라 부르조아階級の 構造와 構成 및 安全性이 크게 수정되었다. 부르조아는 더 이상 獨立의인 支配階級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고 보통선거제의 確立으로 政治權力은 결국 國民大衆의 意思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³⁸⁾

그러면 Dahrendorf는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階級形成의 多樣性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Dahrendorf는 後期 資本主義社會를 分析함으로서 마르크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Dahrendorf는 産業社會의 構造的 變化 樣相은 마르크스가 예견한 계급의 양극화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이 階級構造가 分化 내지 多樣化되고 있다고 설명한다.³⁹⁾

1) 資本의 分化: 주식회사의 발전에 따라 所有·資本과 統制·經營의 分離現象이 일어난다. 이런 現象에 대하여 C. Wright Mills를 대표자로 하는 保守的 見解는 이런 分離現象에도 불구하고 주주와 경영자가 전혀 同質的인 集團이라고 주장한다. Mills는 특히 現代 美國社會의 權力엘리트를 分析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실증적 자료에 對입각하여 所有와 통제와 分리가 갖는 허구성을 지적한다.⁴⁰⁾

이에 대하여 Dahrendorf는 J. Burnham⁴¹⁾에 따라 急進的 見解를 취함으로서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궁극적으로 資本家와는 다른 새로운 경영집단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경제학자 J. K. Galbraith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그는 경제질서가 그 중심이 土地

36) 위의 책, p.24 및 p.29. Bottomore는 이러한 마르크스 비판에 대하여 같은 책 pp.29-32에서 비판하고 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의 부르조아化 現象은 극히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본다.

37) 위의 책, p.25.

38) 위의 책, p.28. 여기서 政治權力의 意思決定의 問題는, 이렇게 속단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서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39) Dahrendorf, 앞의 책(1959), pp.41-61참고.

40) C. Wright Mills, The Power Elites, Oxford Univ. Pr., 1968.

41) James Burnham, The Managerial Revolution, Indiana Univ. Pr., 1960. 이 책에서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 이어 경영자가 지배하는 「경영자 사회」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에서 資本으로, 그리고 오늘날 經營으로 바뀌어 왔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産業國家에 있어서의 大規模 成熟한 法人企業組織을 테크노스트럭처(Technostructur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테크노스트럭처의 核心部에는 經營層이 이 조직과 가장 밀착되어 자리잡고 있고 그 週邊的 위치에 金錢的 보상에만 동기유인을 갖는 주식소유자가 자리한다고 지적한다.⁴²⁾ 말하자면 資本의 支配的 地位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資本家 대 勞動者의 階級萬藤이 변질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 勞動의 分化 :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勞動者는 生産에 관련하여 同質化될 뿐만 아니라 生活與件도 점차 同質化되어 감으로써 하나의 계급으로 더욱 공고하게 결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Dahrendorf에 따르면 技術進歩와 더불어 産業社會의 勞動者는 오히려 分化되어 다음 세 종류의 技術集團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① 점증하는 고도의 숙련노동자층, 이들은 엔지니어 및 전문가층과 결합된다. ② 대단히 확산적이고 특수한 산업경험을 갖는 반숙련노동자층, 비교적 증·감이적이다. ③ 산업체에 새로 채용되거나 반실업상태에 있는 점감하는 비숙련노동자층이 그것이다.⁴³⁾

3) 새로운 中間階級の 대두 : 새로운 中間階級이란 기업, 무역, 상업, 행정 등의 분야에서 월급을 받는 사무직 종사자를 일컫는다. 이 階層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는 그 上限線과 下限線의 계층경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갈등에 관련하여 볼 때 支配者의 편에 서는가 從屬者의 편에 서는가 하는 점이다.

마르크스 시대에는 이 階層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이 계급이 Marginal Class로서 오랫동안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존재였다. 이들 중간계급은 계급의 兩分構造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며 앞으로 階級鬭爭의 過程에서 점차 소멸할 운명의 존재에 불과했다.⁴⁴⁾ 그러나 이 계층은 오늘날 상당한 수로 증가하였고 마르크스의 예측과는 달리 重要한 社會層으로 등장하였다. 이점에 대하여 John H. Goldthorpe는 "상대적인 同質化的 過程이 일어나고 上層과 下層을 分離하는 간격과 범위를 축소한다"는 Alex Inkeles의 叙述⁴⁵⁾을 引用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각 계층질서 내에서 분배상의 중간 범위에 속하게 되는 전체인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계층위계질서의 "형태"는 피라밋 형태이던 것이 끝나고 거의 오각형 혹은 다이아몬드형의 형태가 된다.»⁴⁶⁾

42) J.K. 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 李基旭(譯) 새로운 産業國家, 華文閣, 1973.

43) Dahrendorf, 앞의 책(1959), p.50.

44) 崔載賢, 앞의 글, p.110참조.

45) Alex Inkeles, "Social Stratification in the Modernization of Russia," 1960.

46) John H. Goldthorpe, "Social Stratification in Industrial Society,"(1964) in Melvin M. Tumin (ed.), Readings on Social Stratification, Prentice-Hall, 1971, p.36.

계속해서 그는 이러한 中間層이 현저하게 확대되는 것은 고도 수준의 職業上 役割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經濟問題에 국가의 介入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⁴⁷⁾

Wilbert E. Moore도 産業化 初期에는 兩極化의 경향을 보이나 産業化의 進展에 따라 “매우 다양한 中間의 地位들이 나타남으로써 兩極化의 경향은 감소된다고 하였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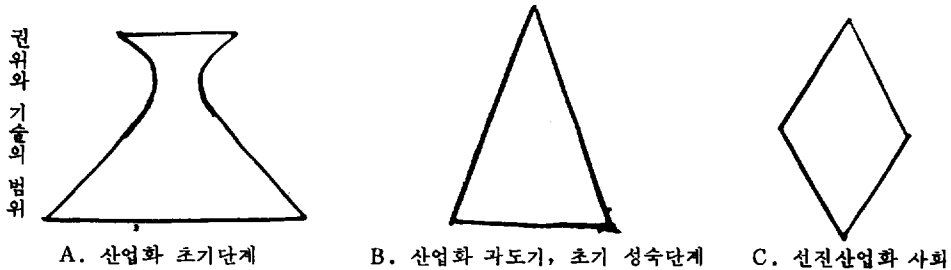
中間階級の 階級으로서의 性格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見解들이 있다. 하나는 중간계급이 경우에 따라 支配階級에 속하기도 하고 復從者의 位置에 서기도 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이 階級은 과거의 資本家나 부르조아등 支配階級の 延長으로서 支配階級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支配階級이라기 보다는 勞働者 階級에 가깝다는 견해이다.⁴⁹⁾

Dahrendorf는 이들 세 견해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이 新中間階級을 官僚와 事務職勞働者로 구별하여 官僚의 社會的 地位에는 支配階級の 論理를, 事務職勞働者들의 社會的 地位에는 勞働階級理論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Dahrendorf에 따르면 新中間階級은 일부 官僚層이 부르조아지에, 사무직노동자가 프로레타리아에 추가 分散되면서 보다 복잡하고 異質의 人 存在가 되었다. 新中間階級 官僚層이 權力行事に 참여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支配階級과는 다르며 사무직노동자도 과거의 勞働者階級과는 다른 社會的 特性을 갖는다. 이리하여 産業社會의 階級秩序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47) 위의 논문 pp.96-97참조.

48) Wilbert E. Moore, Social Change, Prentice-Hall, 1963, p.104. Moore는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권위와 기술의 정도에 따른 산업인구의 분포”상태가 변한다고 하였다.(같은책 p.99)

그러나 T.B.Bottomore 같은 사람은 “소위 노동계급의 부르조아화로 부터, 다시 말하면 현대산업 사회는 중간계급의 사회라는 견해에서 나오는 정치적 결론-이데올로기와 계급갈등의 종말-은 그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것”이라고 한다(Bottomore, 앞의책(1965), p.30).



49) Dahrendorf, 앞의 책(1959), pp.53-54.

이하 中間階級の 性格에 대한 Dahrendorf의 論議는 같은 책 pp.54-61참조.

V 權威關係와 階級秩序

Dahrendorf는 "우리들의 모델에 입각하면 階級이란 用語는 명명적으로 조정된 조직체 내의 權威의 分化的 配分에서 초래된 갈등집단을 의미한다."고 하고있다.⁵⁰⁾ 말하자면 階級秩序는 全体社會를 단위로 하는 二分法的 階級秩序가 아니라 權威關係에 의해 결합된 社會組織 單位의 계급질서라는 것이다. 그는 계급위치가 단지 富나 生産手段의 所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社會組織에서의 權威의 配分에서 결과되는 것이라고 본다. 계급위치의 근본적 결정요인은 경제적 소유가 아니라 權力이다.⁵¹⁾

Dahrendorf에 따라 後期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階級構造를 보면, 權威의인 地位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권위구조의 핵심에 경영자 층을 두고 이 층과 勞働者 階級사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과 사무직 종사자 層이 존재한다.⁵²⁾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J.K. Galbraith의 成熟한 企業組織의 테크노스트럭처에 유사하다. Galbraith는 "成熟한 法人企業에서는 株主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⁵³⁾고 주장하고 뒤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숙한 法人企業은 몇개의 同心圓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 바깥쪽 원 둘레에 가까운 부분은 가장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회사에 결합되는 정도가 가장 완만하고 그 誘因體系도 일반적으로 그에 상응하고 있다. 중심원의 中心部는 이른바 최고 경영자 층이다. 그들은 가장 굳게 會社에 밀착해 있다.」⁵⁴⁾

이러한 同心圓 構造의 맨 바깥쪽 원둘레에 보통 주주가 위치하고, 그다음 中央으로 향하여 生産勞働者, 화이트 칼라, 專門家集團 순으로 中心의 경영자 층에 접근되고 있다.⁵⁵⁾

Dahrendorf가 階級決定要因이 所有權이 아니라 權威·權力이라 보는 것은 政治決定論으로서, 이러한 그의 입장은 政治組織으로서의 國家 單位의 階級構造를 論議함에 있어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後期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국가는 기업과 같이 하나의 權威關係의 構造를 갖는다. 그 내부에 權威의 命命을 발할 권리가 부여된 位置 혹은 사람과 그들에게 종속된 다른 位置 혹은 사람들이 있다."⁵⁶⁾ 나아가서 그는 支配階級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50) Dahrendorf, 앞의 책(1959), p.204.

51) J. Duke, 앞의 책, p.149.

52) Dahrendorf, 앞의 책(1959), pp.248~256참조.

53) Galbraith, 앞의 책, p.200.

54) 위의 책, p.201. 産業組織體(企業)의 階層分化 構造의 形態는 Dahrendorf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 기본 관점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함은 물론이다.

55) 위의 책, pp.201~204.

56) Dahrendorf, 앞의 책(1959), p.290.

같이 말하고 있다.

「Burrham과 Mills에 의하여 이루어진것 같은 分析의 주요 결점중 하나는 그들은 정치국가에 있어서의 명백한 권위의 자리와 그 점유자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⁵⁷⁾

따라서 Dahrendorf가 企業家엘리트와 經濟엘리트는 궁극적으로는 政府엘리트보다 영향력이 적으며, 종종 政府엘리트에 追從的이라고 보고있다는 견해⁵⁸⁾는 옳다고 하겠다.

Dahrendorf는 國家라는 政治單位의 階級構造를 그 成員들의 權力行使에 대한 關係로 이해하고 그 成員들을 다음과 같이 네개의 集團⁵⁹⁾으로 나눈다.

- 1) 支配集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集團.
- 2) 사무봉사 계급(Service Class): 法을 적용·집행할 뿐 아니라 權력을 가진 자를 돕고 자문함으로써 支配集團을 돕는 사람들.
- 3) 被支配集團: 統治者 및 그 公僕들의 權力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
- 4) 知識人層: 지도자와 그 추종자로 이루어지는 構造 밖에 位置해 있는 사람들, 自由로운 浮動知識人. 사회구조에 쉽사리 적응못하고 다소 고독한 자유를 즐길 수 있는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⁶⁰⁾

이러한 區分은 權力關係에서 人間을 몇 개의 集團으로 區分한 B. Russell의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B. Russel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천성이 항상 명령적인데 비해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항상 복종하기 쉬운 생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는 많은 평범한 인간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명령하기를 좋아하나 다른 상황에서는 지도자에게 종속되기를 더 좋아 한다.」⁶¹⁾

그리고 Russell은 제3의 人間으로 “중간에서 물러서는 타입의 인간이 있다”고 하고 이들은 “거만을 떨지 않고 복종을 거부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쉽사리 사회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혼자 고독한 자유를 즐길 수 있는 피난처를 찾는”사람들로서 때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한다.⁶²⁾

57) 위의 책, p.302.

58) J. Duke, 앞의 책, p.150.

59) 여기에서 “집단”은 “계급”의 뜻으로 쓰고 있는 듯 하다.

60)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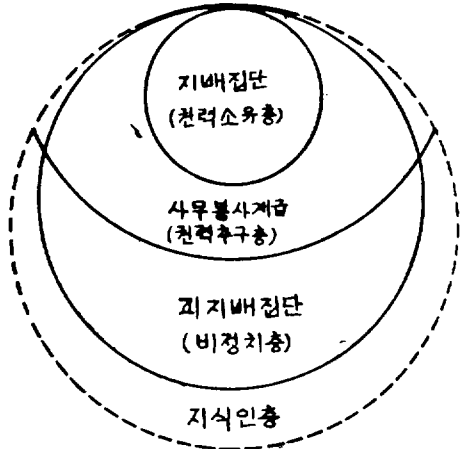
R. Dahrendorf, “Recent Changes in the Class Structure of European Societies,” Frank Lindenfeld(ed), Reader in Political Sociology, Funk & Wagnalls, 1968, p.235.

61) Bertrand Russel, Power: A New Social Analysis; 李成圭(譯), 權力論, 瑞文文庫, 1975, p.18.

62) 앞의 책, p.26.

이러한 국가의 계층구조를 R. Dahl의 政治層(Political Stratum)의 概念⁶³⁾을 빌려 圖式化해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참조).

<그림> 정치국가의 계층구조



※ 이 그림은 Dahl의 政治層을 나타내는 그림을 다소 수정한 것이고 ()속의 표현은 Dahl의 표현이다. Dahl은 지식인층은 구별하지 않았다.

<그림>에서 지배집단과 사무봉사계급은 政治層으로, 피지배집단과 지식인층의 대부분은 비정치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피지배집단은 권력집단에 추종적인 층이고 비정치층의 지식인 층은 비추종적인 성격을 갖는 층이라 할 것이다. 지식인층을 접선으로 나타낸 것은 그들이 사회계층구조의 하나의 층을 형성한다고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정치구조에 공고히 결속되지 않았음을 뜻하며 그 일부는 정치층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 集團들중 사무봉사계급은 광범하게 擴大되고 있으며 그 계급의 特定的인 位置가 다른 모든 계급의 행위에 침투되고 있다고 Dahrendorf는 보고 있다.⁶⁴⁾

Dahrendorf는 이와 같은 階級構造의 基盤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要因을 든다.

- 1) 社會的 發展 : 평등한 시민권의 인정, 代表政府, 法の 支配 및 福祉國家의 出現
- 2) 經濟的 發展 : 經濟發展의 결과 民權의 效果的 行使를 가능케 하는 보다 높은 貨金과 짧은 노동시간의 確保
- 3) 權力構造上의 變化 : 權力의 制度化, '法の 支配'의 一般化, 政治決定論의 現象
- 4) 國家權力 行使의 分化⁶⁵⁾

63) Robert A. Dahl, Modern Political Analysis, Prentice-Hall, 1976, pp.101 이하 참조.

64) Dahrendorf, 앞의 글(1968), p.236.

65) 이상 네 요인에 대해서는 뒷글, pp.240~244참조.

이러한 要因을 背景으로 하여 오늘날 특히 유럽에 있어서 階級構造가 形成되고, 마르크스가 기대하던 바의 強力한 支配者和 無力한 多數의 從屬者와의 敵對視의 問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Dahrendorf의 見解이다.

VI 結論 : 發展的 研究을 위한 問題點의 提起

本稿에서 筆者는 R. Dahrendorf의 階級形成의 問題에 대한 視角을 다른 著述家들의 見解를 가미하면서 再構成 整理하려 하였다.

그의 理論은 K. Marx의 立場을 批判的으로 繼承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마르크스에 결부하여 論議를 進行하였다.

오늘날의 産業社會는 産業化가 進展되면서 이미 마르크스理論의 背景이었던 資本主義社會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後期資本主義 産業社會를 경험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마르크스의 階級理論은 그 說得力이 弱화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의 預言的인 階級 二分化現象은 現實的으로 誤謬임이 명백해 진 것이다. 그리하여 Marx에 대한 批判的 論議가 활발하게 전개 되어 왔는데, R. Dahrendorf, R. Aron, S. Ossowski 등은 그 代表的인 學者로 손꼽을 만 하다.⁶⁶⁾

그 중에서도 특히 R. Dahrendorf는 그의 主著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1959)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理論에서 출발하여 集中的이면서도 包括的으로 産業社會의 階級의 問題를 論議한 두드러진 學者이다. 그는 마르크스가 完成·体系화하지 못한 階級理論을 補充構成하고 나서 그 理論의 오류를 批判하고 마르크스 이후의 産業社會를 背景으로 하여 階級理論의 經驗的 模型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에 따르면 後期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階級現象의 變化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資本의 分化로 새로운 經營者 集團이 등장한다. (2) 勞動의 分化로 勞動者層은 단합된 단일 階層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3) 새로운 中間階級이 대두되고 分化되면서 資本家階級과 勞動者階級の 中間에 位置하지만 그 上·下의 階層境界는 모호하다.

한편 '命令的으로 調整된 組織體' (imperatively co-ordinated association)의 중요한 形態인 國家라는 政治單位에 있어서는 階級構造를 (1) 支配集團, (2) 事務奉仕階級(service class), (3) 被支配集團, (4) 知識人層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이 Dahrendorf는 後期 資本主義社會로서의 産業社會의 階級이 多元的으로 形成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그의 階級理論은 "産業社會를 說明할 수 있는" 理論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社會理論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理論으로서의 普遍性에 問題가 있으며 批判받을 餘이

66) Anthony Giddens, 앞의책(1973), pp.53~78참조.

적지 않다고 보아진다.⁶⁷⁾

어제 그의 階級理論의 몇가지 問題點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맺고저 한다.

1) "명령적으로 조정된 조직체"마다 제급이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은 조직체마다 階級이 遍在한다는 것이 되고, 이것은 全体社會를 단위로 하여 볼 때 역설적으로 階級不在의 現象을 암시해 주는 경우가 있게 된다. 즉, "명령적으로 조정된 조직체"의 概念은 社會階層體系의 層化 現象을 모호하게 만든다.

2) C.W. Mills가 말하는 대로 한 사회에 소수의 權力엘리트가 있어서 産業엘리트와 政治엘리트가 동일하다면, 적어도 엘리트집단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政治決定論을 경제결정론에 대치하는 것이 無意味하다.

3) Marx의 二分法的 階級理論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도 權威의 所有와 非所有를 論議하면서 역시 二分法的 論理에 빠졌다. 이것은 그가 新中間階級을 관료층(지배층)과 화이트칼라 노동자층(피지배층)으로 나누려는 시도에서도 나타난다. 中間階級の 存在 意義는 무엇인가?

4) 知識人을 別個의 社會階層으로 區分하려는 시도에 問題가 있다. 과연 知識人層이 하나의 社會階層으로 存在하는가?

5)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階級構造의 多元성을 論議하는 경우에 그 階級間的 境界선이 애매하다. 이것은 階級構造를 경험적으로 다룰 때 혼란을 일으킨다.

67)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들이 참고가 될 것 같다.

Irving M. Zeitlin, 앞의 책(1973), pp.109~122; Anthony Giddens, 앞의 책(1973), 특히 pp.69~74. 本稿에서는 本稿의 性格상 이에 대한 論議를 除外하였다.

— Summary —

Conflict Theory and Class Formation in Industrial Society

— Ralf Dahrendorf's View —

Haeng-chull Synn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ntends to present a systematic interpretation and to reorganize R. Dahrendorf's class formation theory, including paying some additional attention to other's view.

While Dahrendorf gives a positive critique to Marx's ideas, his theoretical position is substantially on a different one from that of Marx. Therefore, to make Dahrendorf's view clear, it seems to be essential to discuss his theory in closely connection with that of Marx's.

Since Marx, industrial societies have been changed significantly through continuous industrialization. And contemporary society we live in is not such a society that had provided a foundation for Marx's theory formation of class.

Considered empirically, Marx's dichotomic class theory, which had been designed to analyse a dynamic historical movement, has been found to commit an error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 'post-capitalist society' in terms of Dahrendorf.

The argument of Marx's concepts and theory has been set out by many writers, but Dahrendorf is the most eminent one. Starting with supplement of the uncompleted chapter ("The Classes") of Marx's Capital, in his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he criticized that thinker's theory of class and suggested an alternative class model based on some empirical examinations of the changes in the class structure in some industrial societies since Marx.

According to Dahrendorf's view, some of the important changes in the class structure of post-capitalist society are as follows;

- (1) Accompanied with the decomposition of capital, a new managerial group emerged.
- (2) As a result of the decomposition of labor, the working class became to be far from its unity and homogeneity as single class.

(3) Along with the decomposition of both capital and labor, a new middle class of occupying its position between capitalist and working class made the boundaries of classes somewhat ambiguous.

In a political unit of state as one of the important forms of 'imperatively co-ordinated association', on the other hand, the class structure is divided into these : (1) the ruling groups, (2) the service class, (3) the ruled groups, and (4) the intellectuals.

Our discussion, thus, can be summarized : It is Dahrendorf's view that the class structure in industrial society is multi-divisional and complex. But his theory is problematic in its universality because as Dahrendorf suggested, his theory is applicable only to some industrial societies. Addition to, other aspects would be criticized.